

吳濁流의 『亞細亞的孤兒』와 老舍의 『茶館』속에 나타난 인물의 정체성 위기와 역사적 상황 비교연구*

유재성** · 이용태***

— 목 차 —

1. 서론
2. 吳濁流의 『亞細亞的孤兒』
 - 1) 胡太明的 정체성 혼란
 - 2) 개인적 저항과 한계
 - 3) 소설의 심리적 서사
3. 老舍의 『茶館』
 - 1) 王利發와 茶館의 상징성
 - 2) 연극의 3막 구조
 - 3) 연극의 무대적 상징성
4. 『亞細亞的孤兒』와 『茶館』 비교 분석
 - 1) 정체성 위기와 역사적 맥락의 상호작용
 - 2) 전통과 근대화의 충돌: 『亞細亞的孤兒』와 『茶館』의 비극적 서사
 - 3) 소설과 희곡의 서사적 형식: 『亞細亞的孤兒』와 『茶館』의 현실 재현
5. 결론

국문초록

吳濁流의 『亞細亞的孤兒』(1943~1945)와 老舍의 『茶館』(1957)은 동아시아 근대화의 격변 속에서 개인과 공동체가 직면한 정체성 위기를 탐구한 문학적 걸작이다.

* 본 논문은 서일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서일대학교 비즈니스중국어과 부교수(제1저자)

*** 백석대학교 어문학부 교수(교신저자)

『亞細亞的孤兒』는 일본 식민지하 대만(1895~1945)을 배경으로 주인공 胡太明의 심리적 소외와 문화적 혼종성을 통해 식민지 상황의 비극을 그린 작품이다. 『茶館』은 청나라 말기부터 중화민국 초기(1898~1949)까지의 중국을 무대로, 茶館 주인 王利發를 중심으로 반식민지 사회의 공동체 붕괴를 연극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본 연구는 두 작품의 대화·서사·문학적 형식을 비교 분석하여, 식민지와 반식민지 하에서 정체성 위기와 전통 및 근대화 갈등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탐구하였다. Frantz Fanon의 식민지 심리학, Homi Bhabha의 문화적 혼종성, Benedict Anderson의 상상된 공동체 이론을 활용하여, 두 작품이 근대 동아시아의 보편적·특수적 서사를 어떻게 조명하는지를 밝혔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 문학과 역사의 다층적 이해를 심화하고, 두 작품의 학문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키워드 : 『亞細亞的孤兒』, 『茶館』, 정체성 위기, 식민지성, 전통과 근대화 갈등, 동아시아 근대성, 문학적 형식

1. 서론

동아시아 근대화는 식민지와 반식민지 경험, 전통과 근대화의 갈등,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역사적 격변은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문학을 통해 생생히 기록되었다. 吳濁流의 『亞細亞的孤兒』는 일본 식민지하 대만(1895~1945)을 배경으로, 老舍의 『茶館』은 청나라 말기부터 중화민국 초기(1898~1949)의 중국을 배경으로, 각각 아시아의 근대화과정에서 개인과 집단이 겪은 비극적 운명을 묘사하였다.

吳濁流의 『亞細亞的孤兒』는 주인공 胡太明의 심리적 여정을 통해 식민지 대만인의 문화적 소외와 정체성 혼란을 그렸다. 胡太明은 일본·중국·대만이라는 세 문화적 공간에서 끊임없는 배제와 갈등을 경험하며,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아시아의 고아’로 상징된다. 반면, 『茶館』은 茶館이라는 단일 공간을 중심으로, 王利發와 70여 명의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반식

민지 중국의 사회적 붕괴와 전통적 가치의 해체를 연극적으로 형상화하였다. 두 작품은 소설과 연극이라는 상이한 문학 형식을 통해, 근대 동아시아의 비극적 서사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본 연구는 두 작품의 대화·서사·문학적 형식을 비교 분석하여, 정체성 위기라는 보편적 주제가 식민지와 반식민지라는 특수한 역사적 맥락에서 어떻게 변주되는지를 탐구하여 근대 동아시아의 문학적·역사적 서사를 조명하고, 두 작품의 학문적 가치를 재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亞細亞의孤兒』와 『茶館』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근대 동아시아에서 개인과 집단이 경험한 정체성 위기와 비극적 운명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식민지와 반식민지 상황이 인간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에 미친 영향을 밝히고, 두 작품의 문학적·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한다. 특히, 胡太明의 개인적 고립과 王利發의 공동체적 몰락을 대조함으로써, 근대 동아시아의 보편적·특수적 정체성 문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4가지 다각적 접근법을 활용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주제 분석으로 식민지 근대화, 정체성 혼란, 전통과 근대화의 갈등, 개인적 저항의 한계를 중심으로 한 주제의 탐구이다. 두 번째는 인물 비교로 胡太明과 王利發의 경험과 대사를 비교하여, 개인적·집단적 정체성 위기의 차이를 분석한다. 세 번째는 역사사회적 맥락으로 일본 식민지 대만과 반식민지 중국의 정치적·문화적 환경을 대조하며, 각 작품의 역사적 배경을 조명한다. 네 번째는 문학 형식 비교으로 소설과 연극의 서사적·무대적 특성이 주제 표현에 미친 영향의 분석이다.

『亞細亞의孤兒』는 대만 문학의 대표작으로, 일본 식민지 시대의 정체성 문제를 중심으로 평가된다. MCLC Resource Center는 이 작품을 대만의 연대적·식민지적 정체성을 탐구하는 국가적 비유로 해석했다.¹⁾ 반면, 『茶館』

1) MCLC Resource Center Publication (Copyright February 2007) *Leo China*.
<https://u.osu.edu/mclc/book-reviews/orphan-of-asia/>

은 중국 현대 연극의 고전으로, 사회적 변화와 전통의 붕괴를 생생히 묘사하였다. Project MUSE는 이 작품이 일반 시민의 사회적·정치적 변화를 연대기적으로 그려낸다고 평가했다.²⁾ 그러나 현재까지 두 작품 간의 직접적 비교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공백을 메우며, 정체성 위기라는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학문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두 작품의 정체성 위기를 분석하기 위해, Frantz Fanon의 식민지 심리학³⁾, Homi Bhabha의 문화적 혼종성⁴⁾, Benedict Anderson의 상상된 공동체 이론⁵⁾을 활용하고자 한다. 우선 Frantz Fanon은 식민지 피억압자가 식민지 체제 속에서 자기소외와 정체성 위기를 경험한다고 주장한다. 식민지 지배는 원주민의 문화를 억압하고, 식민자의 문화를 강요함으로써 개인의 자기 인식을 왜곡한다. 『亞細亞的孤兒』의 胡太明은 이러한 자기소외의 전형적 사례로, 일본 교육을 통해 근대적 가치를 수용하면서도 식민지 체제의 차별로 인해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재발견한다. 그러나 그의 저항은 개인적 차원에 머물며, Frantz Fanon이 묘사한 식민지 개인의 무력감을 반영한다. Homi Bhabha는 식민지 상황에서 문화적 혼종성이 발생하며, 이는 ‘제3의 공간’—기존의 문화적 경계를 초월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창출한다고 보았다. 胡太明은 일본·중국·대만의 문화적 경계에서 갈등하며, 혼종적 정체성을 형성한다. 그러나 이 혼종성은 안정적이지 않고, 끊임없는 배제와 소외로 이어진다. 『茶館』에서도 반식민지 중국의 혼종적 상황—서구 근대화와 전통적 가치의 충돌—이 茶館이라는 공간에서 드러난다. Benedict Anderson은 국민국가의 정체성이 ‘상상된 공동체’를 통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亞細亞的

2) Project MUS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Volume 58, Number 3, October 2006 pp. 504-506. https://muse.jhu.edu/article/204046/summary#info_wrap

3) 김광순, 「프란츠 파농의 『검은 피부, 하얀 가면』에서 나타나는 식민 관계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 『비평과이론』 제22권 1호, 한국비평이론학회, 2017.01.

4) 박민수, 「문화 혼종성의 이론적 고찰 - 호미 바바를 중심으로」, 『인문학논총』 통권 39호, 2015.

5) 베네딕트 앤더슨, 서지원 옮김, 「상상된 공동체(민족주의의 기원과 보급에 대한 고찰)」, 서울 : 길, 2018.

孤兒』에서 胡太明은 대만의 상상된 공동체에 속하려 하지만, 식민지 체제의 억압으로 인해 소외된다. 『茶館』의 茶館은 전통적 공동체의 상징으로 기능하지만, 근대화의 파괴적 힘 속에서 붕괴된다. Benedict Anderson의 이론은 두 작품의 정체성 위기를 공동체적 차원에서 해석하는 데 유용하다.

2. 吳濁流의 『亞細亞의孤兒』

1) 胡太明의 정체성 혼란

『亞細亞의孤兒』는 일본 식민지 통치하의 대만을 배경으로, 주인공 胡太明이 겪는 정체성 혼란과 그로 인한 비극적 삶을 심도 있게 그려냈다. 胡太明은 일본 교육을 통해서 지식인으로 성장하지만, 중국 전통 관념, 일본의 현대적 문화, 그리고 대만의 지역적 뿌리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느끼면서 어느 문화에도 완전히 소속되지 못 하며, 자신을 ‘고아’로 느끼는 존재론적 고립감에 사로잡힌다. 이는 식민지 상황이 개인에게 강요하는 정체성의 파편화와 소외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胡太明의 정체성 혼란은 대만·일본·중국의 세 문화 사이에서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식민지 사회의 복합적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본의 동화 정책은 대만인에게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강요하며, 그들의 전통적 뿌리를 억압했다. 조부와의 경험은 대만인의 뿌리 깊은 정체성을 상징하지만, 식민 현실은 이를 점차 희석시켜 胡太明의 내면적 갈등을 예고한다.⁶⁾ 胡太明은 일본에서 교육받으며 현대적 이상을 추구하지만⁷⁾, 대만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다. 그는 일본 사회에서 완전한 동화를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기원을 부정해야 하는 압박에 이른다.⁸⁾ 동시에, 중국 본토를

6) 吳濁流, 『亞細亞의孤兒』, 臺北: 草根出版社, 1995, 12쪽.

7) 吳濁流, 『亞細亞의孤兒』, 위의 책, 80쪽.

방문했을 때도 그는 다른 대만인들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라는 경고를 받았고, 외부인으로 취급받으며, 중국 문화와의 연결 역시 단절된 상태임을 깨닫는다.⁹⁾ 그는 진정한 일본인도, 애국적인 중국인도 될 수 없었다. 대만으로 돌아온 胡太明은 식민지 현실 속에서 지역적 정체성을 온전히 주장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낀다.¹⁰⁾ 이러한 삼중적 갈등은 어느 문화적 틀에도 속하지 않는 경계적 존재로 만든다. 그는 일본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중국인으로서의 연대도 형성하지 못하며, 대만인으로서의 자긍심마저 식민지 억압 속에서 흔들린다.¹¹⁾ 이러한 그의 내면적 갈등은 단순한 개인적 고민을 넘어, 식민지 시대 대만인의 집단적 소외감을 반영한 것이다.

胡太明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문화적 구조가 이를 허락하지 않는 현실에서 비롯됨을 깨닫는다. 그 결과 그는 끊임 없이 자신의 존재를 의문하며, 결국 어느 곳에서도 안착하지 못하는 비극적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¹²⁾

2) 개인적 저항과 한계

일본 식민지시대 胡太明은 일본 식민지 정책에 대한 불만과 대만인으로서의 저항의식을 인식한다. 그러나 그의 저항은 주로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수준에 머물며, 구조적 억압 앞에서 개인이 가지는 한계와 무력감을 생생히 드러내며, 내면적 갈등을 심화시킨다. 그의 저항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일본 교육 체제에 대해서는 비판적 태도를 보이며, 식민지 당국의 동화 정책에 대해 저항의식으로 나타난다. 소설 속에서 그는 지식인으로서 일본의 현대적

8) 吳濁流, 『亞細亞的孤兒』, 위의 책, 87쪽.

9) 吳濁流, 『亞細亞的孤兒』, 위의 책, 200쪽.

10) 吳濁流, 『亞細亞的孤兒』, 위의 책, 267쪽.

11) 莊紫蓉, 「自己和自己格鬥的寂寞作家: 專訪葉石濤」, 2001.3.7.

http://www.twcenter.org.tw/b01_1.htm

12) 吳濁流, 『亞細亞的孤兒』, 위의 책, 326쪽.

가치를 수용하면서도, 그 이면에 깔린 차별과 억압을 인식하고 이에 반발한다. 또한, 대만의 전통적 관습에 대한 비판을 통해 낡은 체제에 도전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려는 시도를 한다.¹³⁾ 이러한 저항은 그의 내면에서 대만인으로서의 자긍심과 현대적 이상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인다. 그러나 胡太明의 이러한 저항은 개인적 차원에 국한되며, 사회적 변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는 일본 사회에서 민족적 차별을 경험하며, 자신의 이상이 현실과 충돌하는 한계를 깨닫는다. 예컨대, 일본인과의 인간관계에서 그는 민족적 장벽을 넘지 못하고, 직업적 기회에서도 배제당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대만으로 돌아와서도 그는 식민지 체제의 억압적 구조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었음을 깨닫는다.¹⁴⁾ 그의 저항은 점차 내면적 분노와 좌절로 변모하며, 때로는 비이성적 행동으로 표출하게 된다. 이러한 좌절은 胡太明의 개인적 한계뿐만 아니라, 식민지 시대 대만인의 집단적 무력감을 반영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 노력하지만, 식민지 현실은 그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 당시 대만의 일본 식민 정부는 대만과 중국 본토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했다. 胡太明은 ‘皇民化運動’에 빠져 ‘特種志願兵’을 위해 대학에서 돌아온 達雄의 지원동기를 보고, 과거 징집 시 항일을 위해 희생되었던 조국의 청년들이 생각났고 누구를 위해 전쟁을 하고, 무엇을 위해 하는지, 전쟁에서의 대규모의 살육은 누구를 위하는지를 묻는다.¹⁵⁾ 그의 저항은 결국 자기 파괴적 성격으로 이어지며, 내면적 갈등의 심화를 가져와 식민지 상황에서 개인의 의지가 구조적 억압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점을 통감하고, 광기 속의 광인으로 변신하여 식민지 당국을 비판한다.¹⁶⁾ 그의 광기는 단순한 정신적 붕괴가 아닌 식민지 체제의 억압에 대한 최후의 반항으로, 대만인의 집단적 저항 의지를 상징한다. 그러나 이

13) 簡義明, 「吳濁流研究現況評介與反思--以臺灣的研究成果分析場域」, 『臺灣文藝』 159期, 1997, 45쪽.

14) 吳濁流, 『亞細亞的孤兒』, 위의 책, 97쪽.

15) 吳濁流, 『亞細亞的孤兒』, 위의 책, 300쪽.

16) 吳濁流, 『亞細亞的孤兒』, 위의 책, 326쪽.

반항의 결말은 소문만으로 남는다. 식민지 시대 개인의 저항이 구조적 한계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비극적으로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 胡太明은 중국 남부로 가서 반일 방송을 했다는 소문으로 끝이 난다.

胡太明의 경험은 식민지 상황에서 개인의 무력감을 상징하며, Frantz Fanon의 자기소외 이론과 연결된다.¹⁷⁾ 또한 일본·중국·대만 어디에서도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Homi Bhabha의 제3의 공간에서 불안정한 혼종적 정체성을 경험한다.¹⁸⁾

3) 소설의 심리적 서사

“1937~1945년 중국어 출판 금지, 중국 본토의 문화적 관습 금지”와 같은 일본의 동화 정책은 대만인의 뿌리를 말살하려 했으며, “강렬한 황민화와 전쟁 동원”은 일본식 이름과 생활 방식을 강요해¹⁹⁾ 대만인의 언어와 문화를 말살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뿌리 채 흔든다.²⁰⁾ 胡太明과 같은 지식인에게 이러한 식민지 지배 체제는 심각한 정체성 혼란과 실존적 위기를 초래하며 자신의 존재 의미를 끊임없이 탐구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만든다.²¹⁾ 사실 胡太明은 일본식 근대 교육을 통해서 지식인으로 성장했지만, 이러한 교육은 그의 내면에서 전통적인 대만인 정체성과 계속해서 충돌한다. 胡太明은 일본 사회에서 민족적 차별과 배제를 몸소 경험하며, 완전한 동화가 불가능함을 절감하고 일본 사회에서 완전한 동화를 이루지 못하고, 대만인으로서의 뿌리를 지키

17) 김광순, 「프란츠 파농의 『검은 피부, 하얀 가면』에서 나타나는 식민 관계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 한국비평이론학회, 『비평과이론』 제22권 1호, 2017.01.

18) 박민수, 「문화 혼종성의 이론적 고찰 - 호미 바바를 중심으로」, 『인문학논총』 통권 39호, 2015.

19) Taiwan Insight. (2020).

<https://taiwaninsight.org/2020/01/28/wu-zhuolius-orphan-of-asia-and-the-madness-of-the-colonial-reality/>

20) 吳濁流, 『亞細亞的孤兒』, 위의 책, 21쪽.

21) 吳濁流, 『亞細亞的孤兒』, 위의 책, 27쪽.

려는 노력을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좌절되고, 이러한 갈등은 더욱 심화된다.²²⁾ 제2차 세계대전의 혼란 속에서 그는 식민지 체제의 잔혹함과 모순을 목격하며, 자신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절감하며, 일본과 중국 양측에서 배제당하는 중간적 존재로 남게 된다.

중국 본토 방문은 그가 이상화했던 민족적 정체성과의 연결을 회복하려는 시도였으나, 오히려 ‘외부인’으로 취급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그의 소속감 상실과 심리적 고립감은 더욱 심화되며 그의 실존적 위기를 가중시킨다.²³⁾ 중국 본토에서의 그의 생활은 중국인이 아닌 대만인으로서 외부인 취급을 받으며, 중국 문화와의 연결도 단절된 상태를 깨닫는다. 이러한 환경은 대만인을 대표하는 胡太明으로 하여금 일본과 중국 양측에서 배제당하는 중간적 존재로 만든다. 심지어 “중국과 일본의 스파이로 지목되었다”는 억울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어, 어느 편에도 속하지 못하는 고립감을 경험한다.²⁴⁾ 그는 대만으로 돌아와서도 식민지 현실 속에서 완전한 소속감을 찾지 못한다. 식민지 체제하에서 대만인들에 대한 일본인들의 차별적 발언은 비인간적 처우를 상징한다. 이에 胡太明은 격분하며 실존적 위기를 느낀다.²⁵⁾ 그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끊임없는 정체성 탐구하며,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경계적 존재는 그를 심리적 고립으로 몰아넣는다.²⁶⁾ 이러한 역사적 환경은 胡太明에게 “나는 누구인가? 일본인, 중국인, 아니면 대만인?”이라는 근원적 질문을 던지게 하며, 그의 삶을 실존적 위기로 이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식민지 체제의 억압과 전쟁의 혼란은 그에게 안정된 정체성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의 위기는 단순한 개인적 고민을 넘어, 식민지 시대 대만인의 집단적 비극을 상징한다.²⁷⁾

22) 吳濁流, 『亞細亞的孤兒』, 위의 책, 10쪽.

23) 吳濁流, 『亞細亞的孤兒』, 위의 책, 145쪽.

24) 吳濁流, 『亞細亞的孤兒』, 위의 책, 200쪽, 217쪽.

25) 吳濁流, 『亞細亞的孤兒』, 위의 책, 200쪽, 308쪽.

26) 吳濁流, 『亞細亞的孤兒』, 위의 책, 298쪽.

27) 吳濁流, 『亞細亞的孤兒』, 위의 책, 300쪽.

『亞細亞的孤兒』는 소설의 심리적 서사를 통해, 胡太明의 내면적 갈등을 섬세히 묘사한다. 그의 독백과 대사는 식민지 대만의 시간적 단절—전통적 과거와 근대적 억압의 충돌—을 심리적 공허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老舍의 『茶館』

1) 王利發와 茶館의 상징성

王利發는 裕泰茶館을 유지하며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지만, 청나라 말기 · 군벌 시대 · 국공내전 직후의 시간적 단절 속에서 점차 몰락한다. 茶館은 전통적 공동체의 상징이자 근대화로 인한 해체의 장소로 기능한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는 茶館의 전통적 가치와 근대적 현실의 갈등을 드러낸다. 특히 茶館은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변화가 전통 질서를 어떻게 해제하는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무대로 기능한다.

『茶館』은 裕泰茶館이라는 단일 공간을 중심으로, 王利發와 70여 명의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반식민지 중국의 사회적 붕괴를 형상화한다. 희곡 속에 등장하는 裕泰茶館은 베이징의 일상적 공간으로,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이 모여 삶을 나누는 장소이다.²⁸⁾ 이곳은 과거의 전통적 공동체를 상징한다. 茶館은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봉건적 질서가 근대적 혼란에 밀려나는 무대로 자리 잡는다. 茶館을 운영하는 주인공 王利發는 茶館을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 그는 손님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茶館을 전통적 삶의 중심으로 유지하려 하지만, 당시는 근대적 정치개혁의 실패로 인해 전통적 사회질서에 균열이 발생 되고 대중의 심리적 혼란과 갈등이 일어난 시기이다.

공화국 시대의 군벌간 권력 다툼과 부패는 사회 분열을 가속화시켰고, 이

28) 老舍, 『茶館』, 『老舍文集』(第十一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3, 361쪽.

로 인해 茶館은 점차 불신과 갈등의 장소로 변화된다. 특히 일본의 침략과 국민당 정권의 무능은 사회적 혼란을 더욱 심화시켜 茶館의 일상적 삶은 투쟁으로 변질된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은 茶館의 일상적 풍경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茶館의 물리적 변화는 사회적 격변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기도 하다. 과거의 따뜻한 조명과 활기찬 대화는 점차 희미해 침묵과 어둠으로 바뀌었다. 王利發는 茶館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손님을 끌어들이려 했지만, 근대 자본주의의 도입과 경제적 어려움은 그의 노력을 좌절시킨다. 과거 茶館은 지역 공동체의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되었으나, 새로운 경제 체제는 경쟁과 이익을 우선시했고, 이로 인해 茶館의 손님들 중 상인들은 생존을 위해 치밀한 계산에 몰두하고,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일자리에 시달리는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간다. 王利發는 茶館의 전통을 지키려는 마지막 저항으로 손님 간의 갈등을 중재하려 하였지만, 손님 간의 대화는 정치적 논쟁과 생존의 불안으로 가득 채워져 茶館의 전통적 질서의 붕괴로 이어진다. 王利發는 茶館을 통해 가족과 지역사회의 안정을 꿈꾸었으나, 급격한 시대의 흐름 앞에서 결국 실패하고 만다. 茶館의 실패는 단지 경제적 실패로 끝나지 않고, 이는 전통적 공동체가 근대적 변화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결과를 상징한다. 老舍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당시 중국 사회가 경험한 반봉건적이고 반식민지적 모순과 혼란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2) 연극의 3막 구조

『茶館』은 총 3막으로 이루어진 연극으로, 반식민지 중국의 역사적 전환점을 연대기적으로 포착하며 전통적 질서의 해체와 근대화의 혼돈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각 막은 청나라 말기(1898), 군벌 시대(1910년대), 국공내전 직후(1940년대)를 배경으로, 전통 사회의 안정에서 공동체의 최종적 붕괴로 이어지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드러낸다. 이 3부 구성은 시간적 단절을 통해 반

식민지 중국의 사회적·문화적 몰락을 상징적으로 조명하며, 관객에게 시대의 비극적 흐름을 직관적으로 체감하게 한다.²⁹⁾

제1막은 청나라 말기의 裕泰茶館을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의 중심지로 전통적 중국 사회의 마지막 안정성을 묘사한다. 老舍는 청나라 말기의 전통적 사회를 배경으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의 중심지로 茶館을 묘사했다. 주인공 王利發는 裕泰茶館을 운영하며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려 하나 외세의 침탈과 내부적 부패를 폭로하고 있다.

제2막은 신해혁명 이후 군벌 시대의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혼란으로 茶館의 쇠락과 王利發의 좌절을 그린다. 茶館은 더 이상 공동체의 중심이 아닌 생존을 위한 투쟁의 공간으로 변한다. 王利發는 전통적 운영 방식을 고수하며 茶館을 지키려 하지만 경제적 압박과 사회적 불안은 그의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균열을 보여준다.

제3막은 1940년대, 국공내전 직후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전통적 공동체의 소멸을 의미하는 茶館의 붕괴와 절망 속에서 삶을 마감하는 王利發를 그리고 있다.

희곡 속에 등장하는 裕泰茶館은 베이징의 전통적 삶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이곳은 과거 지역 주민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세상사를 논하던 중심지이다. 그러나 급격한 근대화는 茶館의 따뜻한 분위기를 앗아간다. 王利發는 茶館을 운영하며 가족의 안녕을 지키려 손님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茶館을 공동체의 구심점으로 유지하려고 하나, 시대의 혼란은 그의 의지를 꺾는다.

秦仲義는 산업화를 통해 국가의 부흥을 꿈꾸는 이상주의자로 등장하지만, 현실의 정치에 부딪혀 이상을 실현하지 못한다.³⁰⁾ 이들의 삶은 각기 ‘진보’와 ‘보수’, ‘이상’과 ‘현실’사이에서 시대의 격변에 휘말린다. 茶館은 이들의 무기력과 향수가 엮히는 무대로, 과거의 유대와 근대적 단절이 충돌하는 공간이다.

29) 老舍, 「談『茶館』」, 『老舍的話劇藝術』, 文化藝術出版社, 1982, 156~157쪽.

30) 老舍, 「茶館」, 『老舍文集』(第十一卷), 위의 책, 369쪽. 419쪽.

극 중 王利發의 무기력은 인물들의 내면적 고통을 드러낸다. 王利發는 茶館의 전통적 분위기를 유지하려 하지만, 경제적 압박과 정치적 불안은 그의 노력을 무력화시킨다. 秦仲義는 사회를 개선하려 했지만, 그의 이상은 전쟁과 부패 속에서 좌절된다.

茶館의 일상은 인물들의 무기력을 생생히 보여준다. 과거에는 다양한 계층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기능하던 공간이었으나, 근대화 이후에는 경쟁과 갈등, 불신의 공간으로 변화한다. 등장인물들은 과거의 전통을 향수하면서도, 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시대의 격랑 속에 놓인다. 王利發는 茶館을 유지하려는 마지막 저항의 상징이며, 그의 몰락은 곧 전통 공동체의 해체를 의미한다. 老舍는 시대 변화 속에서 인물들이 느끼는 무기력과 전통적 질서에 대한 향수를 통해, 근대화가 가져온 심리적·사회적 충격과 전통의 상실이 개인에게 미치느니 영향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이 구조는 반식민지 중국의 역사적 변화를 연대기적으로 그려내며, 관객에게 시대적 비극을 직관적으로 체감하게 한다.

3) 연극의 무대적 상징성

茶館은 단순한 배경을 넘어 전통적 공동체의 상징적 중심이자 근대화로 인한 붕괴의 장(場)으로 작용한다. 이 공간은 반식민지 중국의 사회적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무대적 장치로, 전통과 근대성의 갈등을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張靜은 茶館을 문화적 기억의 저장소이자 사회적 상호작용의 장소로 해석하며, 이를 통해 근대 중국 사회의 전통적 기반이 해체되는 과정을 드러낸다고 평가한 바 있다.³¹⁾ 제1막에서 차관은 상인·관리·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이 모여 활발히 교류하는 공간으로 묘사되지만, 제3막에 이르러 폐허로 변모하며 사회적 연대와 전통의 소멸을 상징한다. 이러한 공간적 전이는 연극의 무대적 특성을 활용하여 반식민지 시대의 비극적 현실을 관객에게 직관적

31) 張靜, 「老舍 『茶館』의 社會空間與文化記憶」, 『當代文學評論』 30期, 2012, 19쪽.

으로 전달하며, 茶館을 단순한 물리적 장소를 넘어 문화적·역사적 상징으로 승화시킨다.

3막 구조는 반식민지 중국의 역사적 전환점을 연대기적으로 포착하는 서사적 장치다. 제1막은 전통적 질서의 잔재를, 제2막은 정치적·경제적 혼란을, 제3막은 공동체의 최종적 해체를 각각 드러내며 시간적 단절을 통해 근대화의 파괴적 영향을 부각한다. 이러한 구조는 독자로 하여금 반식민지 중국의 역사적 비극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체감하게 하며, 연극의 서사적 긴장감을 극대화시킨다.

『茶館』의 대사는 반식민지 중국의 사회적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면서도 깊은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다. 王利發의 발언인 “이것은 내 찻집이야. 난 여기서 살고, 여기서 죽을 것이야!”³²⁾는 개인의 무력감과 공동체의 붕괴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며, 부차적 인물들의 대사는 시대적 갈등과 계층적 긴장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혁명가의 이상주의적 언사는 신해혁명의 희망을, 부패한 관리의 말은 청나라의 몰락을 상징한다. 이러한 대사는 연극의 사실적 묘사를 강화하면서도 상징적 층위를 더해, 관객이 사회적 비극을 감정적으로 공감하도록 유도한다. C.T. Hsia는 『茶館』의 대사가 사회적 정체성을 서사적으로 구현한다고 평가하며, 이 상징적 언어의 힘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³³⁾ 대사의 이중적 성격은 『茶館』을 단순한 역사적 재현을 넘어 보편적 비극으로 확장시킨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茶館』의 3부 구성은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된 공동체 이론³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1막에서 상상된 공동체의 중심지로 기능하지만, 근대화의 파괴적 힘은 이 공동체를 해체한다. Homi Bhabha의 문화적 혼종성 개념은³⁵⁾ 반식민지 중국의 혼종적 정체성을 설명하며, 茶館은 전통과

32) 老舍, 「茶館」, 『老舍文集』(第十一卷), 위의 책, 417쪽.

33) Hsia, C. T., *A history of modern Chinese fictio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71. 21쪽.

34) 베네딕트 앤더슨 지음, 서지원 옮김, 「상상된 공동체(민족주의의 기원과 보급에 대한 고찰)」, 실, 2018. 06.

근대성이 불완전하게 융합되는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Frantz Fanon의 식민지 심리학 이론³⁶⁾에 의해 王利發와 인물들의 무기력을 자기소외로 분석하며, 반식민지 상황의 심리적 억압을 드러낸다.

4. 『亞細亞的孤兒』와 『茶館』 비교연구

1) 정체성 위기와 역사적 맥락의 상호작용

(1) 『亞細亞的孤兒』 정체성 위기와 역사적 맥락의 상호작용

『亞細亞的孤兒』는 일본 식민지 통치하의 대만에서 胡太明의 정체성 위기를 통해, 식민지 체제가 개인의 심리적 고통을 어떻게 심화시키는지 탐구하고 있다. 胡太明은 일본식 교육을 받은 지식인으로, 일본·중국·대만의 상충하는 문화적 경계에서 끊임없는 정체성 갈등을 겪는다. 그는 “나는 어느 곳에도 뿌리내리지 못한 떠도는 존재다.”³⁷⁾라고 절규하며, 자신의 소외된 위치를 드러낸다. 이 발언은 식민지 정책이 그의 정체성을 파편화하며, 어떠한 문화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경계적 존재로 전락시켰음을 상징한다.

일본 사회에서 胡太明은 차별적 대우를 경험한다. 그는 “대만인이라고 밝히지 말고, 규슈 출신인 척하라.”³⁸⁾는 조언을 받으며, 일본의 황민화 정책이 대만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억압했음을 체감한다. 중국 본토에서도 그는 “대

35) 박민수, 「문화 혼종성의 이론적 고찰 - 호미 바바를 중심으로」, 『인문학논총』(통권39호), 2015.

36) 김광순, 「프란츠 파농의 『검은 피부, 하얀 가면』에서 나타나는 식민 관계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 한국비평이론학회, 『비평과이론』 제22권 1호, 2017. 01.

37) 吳濁流, 『亞細亞的孤兒』, 위의 책, 220쪽.

38) 吳濁流, 『亞細亞的孤兒』, 위의 책, 87쪽.

만인임을 솔직히 인정했지만, 진심을 다해 중국의 미래를 논했음에도 간첩으로 의심받는다.”³⁹⁾며 또 다른 배제를 당한다. 이러한 연속된 소외는 胡太明을 심리적 공허의 나락으로 몰아넣는다.

胡太明의 정체성 위기는 식민지 대만의 역사적 구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일본의 동화 정책은 중국어 출판 금지, 전통문화에 대한 억압 등을 통해 대만인의 정체성을 말살하려 했다. 그는 “일본의 근대화는 우리의 정체성을 뿌리째 뽑았다.”⁴⁰⁾고 한탄하며, 근대화가 전통적 뿌리를 파괴했음을 통렬히 비판한다. 또한, “여우여, 여우여, 어찌할꼬? 노예의 삶에 깃든 깊은 한...”⁴¹⁾이라는 그의 절규는 식민지 억압이 개인의 영혼을 침식하는 비극을 생생히 보여준다. 簡義明은 『亞細亞的孤兒』가 “식민지 대만 지식인의 적막과 비분을 가장 생동감 있게 포착했다.”⁴²⁾고 평가하며, 胡太明의 고립이 식민지 구조적 폭력의 산물임을 강조한 바 있다.

Homi Bhabha의 혼종성 이론은 胡太明의 정체성 위기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Homi Bhabha는 식민지 상황에서 피억압자의 정체성이 문화적 경계에서 분열된다고 보았다.⁴³⁾ 胡太明은 일본의 근대적 교육, 중국의 전통적 유산, 대만의 지역적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하며, 이 혼종적 위치는 그를 “고아”라는 비유적 존재로 만든다. 그의 대사는 마치 부서진 거울에 비친 자아의 파편을 응시하는 듯한 비극적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며, 식민지 억압이 낳은 심리적 공허를 체현한다. 이는 대만인의 집단적 소외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며, 식민지 체제가 개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침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2) 『茶館』 정체성 위기와 역사적 맥락의 상호작용

39) 吳濁流, 『亞細亞的孤兒』, 위의 책, 200쪽.

40) 吳濁流, 『亞細亞的孤兒』, 위의 책, 180쪽.

41) 吳濁流, 『亞細亞的孤兒』, 위의 책, 326쪽.

42) 簡義明, 「吳濁流研究現況評介與反思--以臺灣的研究成果分析場域」, 위의 책, 45쪽.

43) Homi K. Bhabha,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1994, pp. 85-92.

『茶館』은 청나라 말기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직전까지의 중국을 배경으로, 王利發와 裕泰茶館에 모인 인물들의 집단적 정체성 위기를 통해 반봉건·반식민지 사회의 붕괴를 탐구한다. 茶館은 당시 “문화교류의 장소”⁴⁴⁾로, 다양한 인물들의 갈등과 정체성 변화를 포착하는 무대이다. 王利發는 茶館의 주인으로 전통적 역할을 수행하려 한다. 그러나, “난 평생 어린 백성으로 누구든 보면 예를 올리고, 절을 하고, 읍도하고요. 그제 애들이나 잘 되고, 열지 않고, 굶지 않고, 병이나 안나고 살기 바랄 뿐이었죠!”⁴⁵⁾라고 한탄하며 사회적 변화로 인한 상실감을 토로한다. 이 발언은 무술변법의 실패, 군벌 혼란, 일본 침략, 국민당의 무능이 전통적 정체성을 해체했음을 상징한다.⁴⁶⁾

茶館은 과거 공동체의 중심이었으나, 근대화의 혼란은 이를 갈등과 단절의 공간으로 전락시킨다. 秦仲義는 “산업화로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⁴⁷⁾하는 이상을 품지만, 전쟁과 부패는 그의 꿈을 좌절시킨다. 이 인물들의 대사는 茶館이 계층별 상실감과 정체성 위기를 담는 무대임을 보여준다.

茶館의 정체성 위기는 반봉건·반식민지 중국의 역사적 맥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茶館 주인 王利發, 정직하고 애국심이 강한 常四爺, 민족자본가 秦仲義 등 세 사람의 형상에서 “무술정변과 민국초기의 군벌혼전, 그리고 항전 및 항전 이후의 국민당 독재 등 세 시대”⁴⁸⁾가 반영되어 있다. 이를 배경으로 茶館이 사회적 병폐를 담는 무대로 기능한다고 분석한다. C.T. Hsia는 『茶館』을 “사회적 붕괴의 서사”로 평가하며, 茶館이 계층별 정체성 해체를 생생히 포착한다고 보았다.⁴⁹⁾ 王利發의 대사는 茶館이라는 무대가 무너지며 공동체의 정체성이 흩어지는 비극을 애도하며, 그는 전통적 삶의 마지막 수호

44) 老舍, 「茶館」, 『老舍文集』(第十一卷), 위의 책, 361쪽.

45) 老舍, 「茶館」, 『老舍文集』(第十一卷), 위의 책, 420쪽.

46) 김중수·최건, 『중국 당대 문학사』, 서울: 청년사, 1991, 186쪽.

47) 老舍, 「茶館」, 『老舍文集』(第十一卷), 위의 책, 419쪽.

48) 신흥철, 「부침하는 근·현대사의 인물들」, 『中國現代文學全集18』, 중앙일보사, 1989, 232쪽.

49) Hsia, C.T. *A History of Modern Chinese Fic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1, pp. 256-260.

자로서 역사적 격변에 맞서지만 결국 패배한다.

(3) 정체성 위기의 공통점과 차이점

『亞細亞의孤兒』와 『茶館』은 역사적 억압이 정체성 위기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胡太明의 “고아” 비유는 식민지 대만의 구조적 폭력 속 개인의 심리적 소외를 상징하며, 王利發의 상실감은 근대 중국의 혼란 속 공동체의 붕괴를 대변한다. Bhabha의 혼종성 이론은 두 인물의 정체성 과편화를 설명한다. 胡太明은 일본·중국·대만의 문화적 경계에서, 王利發는 전통과 근대화의 갈림길에서 혼종적 위치를 점한다.⁵⁰⁾ 胡太明은 식민지 억압의 유령으로, 王利發는 무너지는 茶館 무대의 비극적 배우로, 각각 동아시아 근대사의 개인적·집단적 비극을 구현한다.

그러나 정체성 위기의 표현 방식은 상이하다. 『亞細亞의孤兒』는 胡太明의 “나는 어느 곳에도 뿌리내리지 못한 떠도는 존재다”에서 보듯, 심리적 고통을 소설의 내면적 서사로 섬세히 그린다. 그의 대사는 식민지 체제가 내면을 침식한 비극을 드러내며, 독자를 개인의 고독에 몰입시킨다. 簡義明은 이를 “식민지 지식인의 정체성 붕괴를 섬세히 묘사한 소설적 깊이”로 평가하며, 胡太明이 대만인의 보편적 소외를 대변한다고 본다.⁵¹⁾ 반면, 『茶館』은 王利發의 “사람은 어쨌든 살아야 하잖소? 내가 온갖 방법을 다 써온 것도 다 살기 위해서 아니겠소!”⁵²⁾와 秦仲義의 대사를 통해 정체성 위기를 집단적 경험으로 확장한다. David Der-wei Wang은 茶館을 “사회적 변화의 축소판”으로 해석하며, 희곡의 대화와 무대가 공동체 붕괴를 생동감 있게 전달한다고 평가했다.⁵³⁾

50) Homi K. Bhabha,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1994, pp. 85-92.

51) 簡義明, 「吳濁流研究現況評介與反思--以臺灣的研究成果分析場域」, 위의 책, 45쪽.

52) 老舍, 「茶館」, 『老舍文集』(第十一卷), 위의 책, 421쪽.

53) David Der-wei Wang, *Fictional Realism in Twentieth-Century Chin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2, pp. 123-130

(4) 소결

『亞細亞的孤兒』는 胡太明的 심리적 소외를 통해 식민지 대만의 개인적 비극을, 『茶館』은 王利發와 주변 인물들의 집단적 상실을 통해 반식민지 중국의 사회적 붕괴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다. 胡太明은 문화적 경계의 유령으로, 王利發는 무너지는 茶館의 마지막 수호자로, 각각 식민지와 근대화의 구조적 폭력에 침식된 정체성을 구현한다. 두 작품은 동아시아 근대사의 복합적 비극을 개인과 공동체의 차원에서 조명하며, 역사적 맥락이 정체성을 형성하고 파괴하는 과정을 생생히 드러냈다.

2) 전통과 근대화의 충돌: 『亞細亞的孤兒』와 『茶館』의 비극적 서사

(1) 『亞細亞的孤兒』: 개인적 정체성의 파열

『亞細亞的孤兒』는 胡太明의 내면적 갈등을 통해 식민지 대만에서 전통과 근대화의 충돌을 탐구한다. 그는 일본식 교육을 받은 지식인으로 대만의 전통적 가치—한학과 유교적 공동체 의식—를 지키려 하지만, 식민지 체제의 근대화 정책은 그의 정체성을 파괴한다. 일본 사회에서 그는 대만인임을 숨기라는 압박을 받는다. “여기선 대만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규슈 사람처럼 행동하라.”⁵⁴⁾는 조인은 황민화 정책이 대만인의 문화적 뿌리를 억압했음을 보여준다. 胡太明은 “일본의 근대성은 우리의 전통을 뿌리째 흔들었다.”⁵⁵⁾고 비판하며, 식민지 근대화가 대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말살했다고 통렬히 고발한다.

대만으로 돌아와도 그는 황민화 운동의 억압 속에서 전통을 지킬 수 없으며, “대만의 영혼이여, 어디로 사라졌는가?”⁵⁶⁾라며 전통의 상실을 절규한다.

54) 吳濁流, 『亞細亞的孤兒』, 위의 책, 87쪽.

55) 吳濁流, 『亞細亞的孤兒』, 위의 책, 180쪽.

이 절규는 식민지 근대화가 그의 자아를 파괴하며 광기로 몰아넣은 비극적 순간을 상징한다. 李育靑은 『亞細亞의孤兒』가 “식민지 대만인의 전통 상실을 생동감 있게 포착한 작품”⁵⁷⁾이라며, 胡太明의 비극이 대만인의 집단적 소외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포스트콜로니얼 이론은 胡太明의 갈등을 식민지적 근대화의 강제로 해석한다. Homi Bhabha의 혼종성 이론에 따르면, 식민지 피억압자는 전통과 근대성의 경계에서 분열된 정체성을 경험한다.⁵⁸⁾ 胡太明은 일본의 근대적 교육과 대만의 전통 사이에서 혼종적 위치에 갇히며, 이 갈등은 그의 심리적 파열로 이어진다. 그의 비극은 식민지 근대화가 전통을 억압하며 초래한 내면적 붕괴의 산물이다.

(2) 『茶館』: 공동체의 해체

『茶館』은 베이징 裕泰茶館을 통해 중국 근대화과정에서 전통과 근대성의 충돌을 탐구한다. 茶館은 당시 “문화교류의 장소”⁵⁹⁾로, 전통적 공동체의 중심을 상징한다. 王利發는 茶館을 전통적 유대의 상징으로 지키려 하지만, 청나라 말기의 혼란, 중화민국의 군벌 시대, 신중국의 통제는 이를 무너뜨린다.

王利發는 “사람은 어쨌든 살아야 하잖소? 내가 온갖 방법을 다 써온 것도 다 살기 위해서 아니겠소!”⁶⁰⁾라며 전통의 몰락을 한탄한다. 제3막에서 茶館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남기 위해 혁신과 개량을 추구하지만 부흥하지 못하고 몰락한다. 張明은 『茶館』이 “중국 근대화의 파괴적 충격을 茶館의 몰락으로 압축했다.”⁶¹⁾고 평가하며, 王利發의 비극이 전통적 공동체의 해

56) 吳濁流, 『亞細亞의孤兒』, 위의 책, 326쪽.

57) 李育靑, 「『亞細亞의孤兒』中的傳統與現代性」, 『臺灣文學研究』 12期, 2000, 45쪽.

58) Homi K. Bhabha,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1994, pp. 85-92.

59) 老舍, 「茶館」, 『老舍文集』(第十一卷), 위의 책, 361쪽.

60) 老舍, 「茶館」, 『老舍文集』(第十一卷), 위의 책, 421쪽.

61) 張明, 「老舍『茶館』的現代性與傳統崩潰」, 『中國現代文學研究』, 25期, 2010, p. 78

체를 대변한다고 보았다.

(3) 디아스포라(Diaspora)적 상실

디아스포라 이론은 두 작품의 갈등을 전통적 고향의 상실로 해석한다. William Safran은 디아스포라를 “고향에 대한 집단적 기억과 신화”로 정의한다.⁶²⁾ 胡太明은 대만의 전통적 고향을 지키려 하지만, 식민지 근대화는 그를 “어느 곳에도 뿌리내리지 못한 떠도는 존재”로 만든다.⁶³⁾ 王利發는 茶館을 전통적 고향으로 간주하지만, 근대적 체제는 이를 붕괴시키며 그를 “사람은 어쨌든 살아야 하잖소? 내가 온갖 방법을 다 써온 것도 다 살기 위해서 아니겠소!”⁶⁴⁾함으로써 王利發를 상실감 속으로 몰아넣는다. 두 인물은 전통적 고향의 상실을 통해 근대화의 비극적 결과를 체현한다.

(4) 갈등과 비극의 공통점과 차이점

두 작품은 전통과 근대화의 갈등이 비극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胡太明의 “일본의 근대성은 우리의 전통을 뿌리째 흔들었다.”⁶⁵⁾는 식민지 근대화가 대만의 전통을 파괴했음을 보여주며, “이것은 내 찻집이야. 난 여기서 살고, 여기서 죽을 것이야!”⁶⁶⁾라는 王利發의 애도는 근대적 체제가 중국의 전통적 공동체를 해체했음을 드러낸다. 이는 동아시아 근대화가 전통을 억압하며 개인과 공동체에 깊은 상흔을 남겼음을 상징한다.

그러나 비극의 표현 방식은 상이하다. 『亞細亞의孤兒』는 胡太明의 “대만

62) William Safran, “Diasporas in Modern Societies,” *Diaspora* 1, no. 1, 1991, p. 83

63) 吳濁流, 『亞細亞의孤兒』, 위의 책, 220쪽.

64) 老舍, 「茶館」, 『老舍文集』(第十一卷), 위의 책, 421쪽.

65) 吳濁流, 『亞細亞의孤兒』, 위의 책, 180쪽.

66) 老舍, 「茶館」, 『老舍文集』(第十一卷), 위의 책, 417쪽.

의 영혼이여, 어디로 사라졌는가?”⁶⁷⁾에서 보듯, 전통 상실이 개인의 자아를 붕괴시키는 심리적 비극을 강조한다. 李育靑은 이를 “대만인의 전통 상실을 생생히 포착한 소설적 깊이”⁶⁸⁾로 평가하며, 胡太明의 고립이 식민지 경험의 상징이라고 본다. 반면, 『茶館』은 “사람은 어쨌든 살아야 하잖소? 내가 온갖 방법을 다 써온 것도 다 살기 위해서 아니겠소!”⁶⁹⁾에서 보듯, 집단적 비극을 茶館 무대를 통해 확장한다. 張明은 茶館의 몰락이 “근대 중국의 전통 해체를 압축한 서사”⁷⁰⁾라고 평가하며, 王利發의 상실감이 계층별 비극을 포착한다고 본다.

(5) 소결

胡太明의 비극은 전통과 근대성의 갈등이 낳은 고립된 자아의 초상이다. 그의 대사는 식민지 근대화가 전통을 억누르며 심리적 공허를 초래한 비극을 상징하며, 그는 대만과 일본의 경계에서 떠도는 그림자처럼 전통의 상실을 체현한다. 王利發는 茶館이라는 무대의 마지막 수호자로, 근대적 체제가 전통적 공동체를 해체하며 삶의 기반을 앗아간 비극을 애도한다. 『亞細亞的孤兒』는 개인의 심리적 파열로, 『茶館』은 공동체의 붕괴로 전통과 근대화의 갈등을 그려내며, 두 작품은 동아시아 근대사의 비극적 단면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조명한다. 이는 전통과 근대화의 충돌이 개인과 사회에 남긴 깊은 상흔을 문학적으로 탐구하며, 식민지와 근대화의 보편적·특수적 영향을 생생히 드러낸다.

67) 吳濁流, 『亞細亞的孤兒』, 위의 책, 326쪽.

68) 李育靑, 「『亞細亞的孤兒』中的傳統與現代性」, 위의 책, 45쪽.

69) 老舍, 「茶館」, 『老舍文集』(第十一卷), 위의 책, 421쪽.

70) 張明, 「老舍『茶館』的現代性與傳統崩潰」, 『中國現代文學研究』25期, 2010, 78쪽.

3) 소설과 희극의 서사적 형식: 『亞細亞의孤兒』와 『茶館』의 현실 재현

(1) 『亞細亞의孤兒』: 소설의 심리적 서사

소설 형식의 『亞細亞의孤兒』는 胡太明의 내면적 투쟁을 심리적 렌즈로 포착하며, 식민지 대만의 현실을 주관적 고통으로 재구성한다. 일본에서 그는 대만인 정체성을 억압당한다. “너 대만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일본 본토인처럼 행동하라. 그래야 번거로움이 없다.”⁷¹⁾는 요구는 황민화 정책의 폭력을 드러낸다. 소설은 이 외부적 억압을 胡太明의 내면적 갈등—수치심, 분노, 소외—으로 확장하며, 그의 독백 “근대화의 파도는 우리의 전통을 물어버렸다.”⁷²⁾는 대만의 문화적 상실을 한탄한다. 이 독백은 식민지 근대화가 전통을 파괴한 비극을 심화하며, 소설의 서술은 그의 감정적 동요를 섬세히 포착한다.

소설의 회상과 의식 흐름 기법은 황민화 정책, 전통 억압, 차별로 점철된 식민지 대만의 현실을 胡太明의 주관적 고통으로 재구성한다. 그의 내면적 서사는 독자를 심리적 고립 속으로 끌어들이며, 전통과 근대화의 갈등을 개인의 비극으로 심화한다. Michel Riffaterre는 이를 문예미학 관점에서 소설의 서사적 텍스처가 독자의 정서적 공명을 유도한다고 보았다.⁷³⁾ 陳芳明은 『亞細亞的孤兒』에서 胡太明의 독백과 회상을 통해 대만인의 소외를 체감하게 하는 것에 대해, “소설의 심리적 서사가 胡太明의 내면을 통해 식민지 대만인의 고립을 생생히 구현했다.”⁷⁴⁾고 평가했다.

(2) 『茶館』: 희극의 무대적 상징

71) 吳濁流, 『亞細亞的孤兒』, 위의 책, 86쪽.

72) 吳濁流, 『亞細亞的孤兒』, 위의 책, 165쪽.

73) Michel Riffaterre, *Fictional Truth*,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0, p.23

74) 陳芳明, 『殖民地臺灣文學史』, 臺北: 麥田出版, 2006, 156쪽.

희곡 형식의 『茶館』은 간결한 대화, 무대 연출, 시각적·청각적 상징성을 통해 집단적 갈등을 압축적으로 전달한다. 茶館은 당시 “문화교류의 장소”⁷⁵⁾로, 전통적 공동체의 중심을 상징한다. 총 3부 구성은 청나라 말기의 무술정변과 민국초의 군벌혼전, 그리고 항전 및 항전 이후의 국민당 독재 등 세 시대가 반영되어 있다. 茶館의 점진적 쇠락을 통해 전통의 붕괴를 시각화한다. 제1막에서 王利發는 茶館을 근대화하라는 압박을 받는다. 제2막에서는 처세에 능통하고, 경영에 끊임없이 변화하여 茶館을 잘 경영하였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람은 어쨌든 살아야 하잖소? 내가 온갖 방법을 다 써온 것도 다 살기 위해서 아니겠소!”하며 전통의 몰락을 애도하고 있으며, 제3막에서 “이것은 내 찻집이야. 난 여기서 살고, 여기서 죽을 것이야!”⁷⁶⁾라고 한탄한다. 희곡의 무대 연출—茶館의 황폐화, 텅 빈 공간—은 근대화의 파괴적 충격을 시각적으로 강조한다. 공간 이론가 Henri Lefebvre(앙리 르페브르)는 공간이 사회적 갈등의 무대로 기능한다고 보았다.⁷⁷⁾ 『茶館』은 茶館을 전통과 근대성의 충돌 무대로 설정하였는데, 이 점에 대해 張靜은 “희곡의 무대적 상징이 차관을 근대 중국의 전통 해체를 압축한 공간으로 만들었다.”⁷⁸⁾고 평가했다.

(3) 형식과 현실 묘사의 상관관계

소설과 희곡의 서사 방식은 전통-근대화 갈등의 현실 묘사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친다. 『亞細亞의孤兒』의 소설 형식은 胡太明의 내면적 갈등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며, 주제를 개인의 심리적 비극으로 좁힌다. 독백과 회상은 황민화 정책과 전통 억압의 식민지 현실을 그의 주관적 고통으로 재구성하며, 독자를 심리적 소외에 몰입시킨다. 소설의 비선형적 시간 구조는 역사적 맥락

75) 老舍, 「茶館」, 『老舍文集』(第十一卷), 위의 책, 361쪽.

76) 老舍, 「茶館」, 『老舍文集』(第十一卷), 위의 책, 417쪽.

77) Henri Lefebvre, *The Production of Space*, Oxford: Blackwell, 1991, p. 38

78) 張靜, 「老舍『茶館』的社會空間與文化記憶」, 위의 책, 65쪽.

을 개인의 경험과 얽으며, 대만인의 집단적 상실을 胡太明의 고립으로 연결한다. 陳芳明은 이를 “소설의 서사적 깊이가 胡太明의 심리적 붕괴를 대만인의 보편적 경험으로 승화시켰다.”⁷⁹⁾고 평가했다.

반면, 『茶館』의 희곡 형식은 茶館을 사회적 갈등의 상징적 무대로 설정하며, 주제를 집단적 비극으로 확장한다. 王利發의 “이것은 내 찻집이야. 난 여기서 살고, 여기서 죽을 것이야!”는 공동체의 몰락을 상징하며, 대화와 무대 연출은 청나라 말기, 중화민국, 신중국의 사회적 붕괴를 생생히 전달한다. 희곡의 선형적 3부 구성은 시간적 단절을 통해 근대화의 파괴적 영향을 압축하며, 茶館의 황폐화는 관객에게 시각적 충격을 준다. 이 점에 대해 張靜은 茶館의 무대가 “근대 중국의 전통 해체를 시각적으로 압축한 상징”⁸⁰⁾이라고 보았다.

(4) 소결

내러티브(Narrative) 이론가 제라르 주네트(Gerard Genette)는 내러티브의 시간-공간 구조가 주제의 서사적 구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⁸¹⁾ 『亞細亞의孤兒』는 소설의 비선형적 서사(회상, 의식 흐름)를 통해 胡太明의 갈등을 심리적 파열로 심화하며, 독자에게 개인적 비극을 체험하게 한다. 『茶館』은 희곡의 선형적 삼부 구조와 무대 연출을 통해 茶館의 몰락을 계층적 붕괴로 압축하며, 관객에게 사회적 비극을 즉각적으로 전달한다. 소설은 내면적 공감, 희곡은 외적 충격을 유도하며, 주제를 다층적으로 표현한다.

『亞細亞의孤兒』는 소설의 심리적 서사로 胡太明의 전통-근대화 갈등을 내면적 비극으로 좁히며, 그의 고립을 통해 식민지 대만의 현실을 섬세히 재

79) 陳芳明, 『殖民地臺灣文學史』, 위의 책, 156쪽.

80) 張靜, 「老舍『茶館』의社會空間與文化記憶」, 위의 책, 65쪽.

81) Gerard Genette, *Narrative Discourse: An Essay in Method*,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0, p. 35

현한다. 『茶館』은 희곡의 무대적 상징으로 茶館을 사회적 갈등의 무대로 설정하며, 공동체의 붕괴를 통해 근대 중국의 비극을 압축적으로 구현한다. 소설은 胡太明의 심리적 파열을, 희곡은 王利發의 집단적 상실을 통해 전통과 근대화의 갈등을 각기 다른 감정적·사회적 층위로 표현하며, 동아시아 근대사의 복합적 현실을 문학적으로 조명한다.

5. 결론

吳濁流의 『亞細亞的孤兒』와 老舍의 『茶館』은 동아시아 근대화의 격변 속에서 개인과 공동체가 직면한 정체성 위기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며, 식민지와 반식민지 시대의 복합적 비극을 생생히 표현했다. 본 연구는 胡太明의 개인적 소외와 王利發의 공동체적 몰락을 비교 분석하여, 역사적 억압이 정체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탐구했다. 두 작품은 소설과 희곡이란 상이한 서사 형식을 통해, 정체성 위기라는 보편적 주제를 각각 대만과 중국의 특수한 맥락에서 변주하며, 동아시아 근대사의 다층적 서사를 조명한다.

『亞細亞的孤兒』는 胡太明의 심리적 갈등을 통해 식민지 대만의 개인적 비극을 구현한다. 그는 일본·중국·대만의 문화적 경계에서 소외되며, “어느 곳에도 뿌리내리지 못한 떠도는 존재”⁸²⁾라는 고백으로 식민지 체제의 정체성 파괴를 상징한다. 그의 독백과 회상은 황민화 정책과 전통 억압의 현실을 내면적 공허로 재구성하며, 소설의 비선형적 서사는 식민지 대만인의 집단적 소외를 심리적 파열로 심화한다. Homi Bhabha의 혼종성 이론은 胡太明의 경계적 위치를 설명하며, 그의 광기는 Frantz Fanon의 자기소외 이론으로 해석되는 식민지 억압에 대한 최후의 반항이다.⁸³⁾

82) 吳濁流, 『亞細亞的孤兒』, 위의 책, 220쪽.

83) Homi K. Bhabha,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1994, pp. 85-92.

김광순, 「프란츠 파농의 『검은 피부, 하얀 가면』에서 나타나는 식민 관계에 대한

반면, 『茶館』은 茶館을 통해 반식민지 중국의 집단적 붕괴를 그린다. 王利發는 “사람은 어쨌든 살아야 하잖소? 내가 온갖 방법을 다 써온 것도 다 살기 위해서 아니겠소!”라며 전통의 몰락을 애도하며, 茶館의 황폐화는 청나라 말기의 무술정변과 민국초의 군벌혼전, 그리고 항전 및 항전 이후의 국민당 독재 등 세 시대가 반영되어 있다. 희곡의 3부 구성과 무대 연출은 청나라 말기부터 신중국까지의 시간적 단절을 압축하며, 茶館은 Benedict Anderson의 상상된 공동체가 근대화의 파괴적 힘에 의해 해체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⁸⁴⁾ 秦仲義의 대사는 각각 진보와 보수의 좌절을 드러내며, 반식민지 중국의 혼종적 정체성을 Bhabha의 이론으로 조명한다.⁸⁵⁾

두 작품은 역사적 억압이 정체성 위기를 초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胡太明的 고립은 식민지 대만의 개인적 비극을, 王利發의 몰락은 반식민지 중국의 공동체적 상실을 상징한다. 이는 동아시아 근대화가 전통을 억압한 결과이다. 그러나 표현 방식은 상이하다. 소설은 胡太明의 내면적 서사로 심리적 고통을 섬세히 묘사하며, 희곡은 茶館의 무대적 상징으로 사회적 붕괴를 시각적으로 압축한다.⁸⁶⁾ William Safran의 디아스포라 이론은 두 인물의 전통적 고향 상실을 공통된 비극으로 연결한다.⁸⁷⁾

본 연구는 두 작품에 초점을 맞춘 비교 분석에 집중했으나, 다른 동아시아 문학작품(예: 한국의 식민지 문학)과의 비교는 포함하지 않았다. 『亞細亞의孤兒』는 식민지 개인의 심리적 과열을, 『茶館』은 반식민지 공동체의 해체를 통해 근대화의 복합적 영향을 문학적으로 재현한다. 향후 연구는 한국의

정신분석학적 연구, 한국비평이론학회, 『비평과이론』 제22권 1호, 2017.01.

84) 베네딕트 앤더슨 지음, 서지원 옮김, 『상상된 공동체(민족주의의 기원과 보급에 대한 고찰)』, 실, 2018.06.

85) 박민수, 「문화 혼종성의 이론적 고찰 - 호미 바바를 중심으로」, 『인문학논총』 통권 39호, 2015.

86) 陳芳明, 『殖民地臺灣文學史』, 위의 책, 156쪽.

張靜, 「老舍『茶館』의社會空間與文化記憶」, 위의 책, 65쪽.

87) William Safran, *Diaspora: A Journal of Transnational Studies*, Volume 1, Number 1, Spring.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1, p. 83.

식민지 문학 등 다른 동아시아 텍스트와의 비교나, 두 작품의 현대적 수용(영화, 연극)을 분석하여 근대 정체성 위기의 현재적 의미를 확장할 수 있다. 이는 동아시아 문학과 역사의 이해를 심화하며, 두 작품의 학문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다고 본다.

參考文獻

- 吳濁流, 『亞細亞의孤兒』, 臺北 草根出版社, 1995.
- 유재성, 이용태, 「吳濁流의 『亞細亞의孤兒』 연구」, 『韓中言語文化研究』 제 69집, 韓國中國言語文化研究會, 2023.
- 우귀류저, 송승식역, 『아시아의 고아』, 아시아, 2012.
- 老舍, 「茶館」, 『老舍文集』(第十一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3.
- 老舍, 「談『茶館』」, 『老舍的話劇藝術』, 文化藝術出版社, 1982.
- 老舍著, 오수경역. 『中國現代文學全集18』, 서울: 중앙일보사, 1989.
- 이수용, 『노사(老舍)』, 건국대학교출판부, 1994.
- 신홍철, 「부침하는 근·현대사의 인물들」, 『中國現代文學全集18』, 중앙일보사, 1989.
- 김광순, 「프란츠 파농의 『검은 피부, 하얀 가면』에서 나타나는 식민 관계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 『비평과이론』 제22권 1호, 한국비평이론학회, 2017.
- 박민수, 「문화 혼종성의 이론적 고찰 - 호미 바바를 중심으로」, 『인문학논총』 통권39호, 2015.
- 베네딕트 앤더슨, 서지원 옮김, 「상상된 공동체(민족주의의 기원과 보급에 대한 고찰)」, 서울 : 길, 2018.
- 김중수 · 최건, 『중국 당대 문학사』, 서울: 청년사, 1991.
- 莊紫蓉, 「自己和自己格鬪的寂寞作家 : 專訪葉石濤」, 2001.
http://www.twcenter.org.tw/b01_1.htm
- 簡義明, 「吳濁流研究現況評介與反思--以臺灣的研究成果分析場域」, 『臺灣文藝』 159期, 1997.
- 張靜, 「老舍『茶館』的社會空間與文化記憶」, 『當代文學評論』 30期, 2012.
- Hsia, C. T., *A history of modern Chinese fictio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71.
- Homi K. Bhabha,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1994.
- David Der-wei Wang, *Fictional Realism in Twentieth-Century China*, New

-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2.
- 張明, 「老舍『茶館』的現代性與傳統崩潰」, 『中國現代文學研究』 25期, 2010.
- William Safran, “*Diasporas in Modern Societies*” *Diaspora*1, no. 1, y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1.
- Michel Riffaterre, *Fictional Truth*,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0.
- 陳芳明, 『殖民地臺灣文學史』, 臺北: 麥田出版, 2006.
- Henri Lefebvre, *The Production of Space*, Oxford: Blackwell, 1991.
- Gerard Genette, *Narrative Discourse: An Essay in Method*,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0.
- 崔智惠, 「老舍의 『茶館』 연구-시대상황 표현과 사용언어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李育青, 「『亞細亞的孤兒』中的傳統與現代性」, 『臺灣文學研究』 12期, 2000.
- Anderson, B.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Rev. ed.). London: Verso. 2006.
- Bhabha, H. K.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1994.
- Fanon, F. *The Wretched of the Earth*. NY: Grove Press. 1963
- MCLC Resource Center Publication. (2007). Leo Ching. <https://u.osu.edu/mclc/book-reviews/orphan-of-asia/>
- Project MUS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Volume 58, Number 3, October 2006
- Taiwan Insight. 2020. <https://taiwaninsight.org/2020/01/28/wu-zhuolius-orphan-of-asia-and-the-madness-of-the-colonial-reality/>
- Wu, C.-L. *Spatial Aesthetics in Modern Chinese Drama: A Case Study of Teahouse*(*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2012
- Zhang, H. *Narrative Strategies in Orphan of Asia: A Postcolonial Reading*(*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Hong Kong, Hong Kong. 2014.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Identity Crisis and Historical Context in Wu Zhuoliu's *Orphan of Asia* and Lao She's *Teahouse*

You, Jae Sung · Lee, Yong Tae

Wu Zhuoliu's *Orphan of Asia* (1943–1945) and Lao She's *Teahouse* (1957) are literary masterpieces that explore the identity crises faced by individuals and communities amid the upheavals of East Asian modernization. Set against the backdrop of Japanese colonial Taiwan (1895–1945), *Orphan of Asia* portrays the tragedy of colonial experience through the psychological alienation and cultural hybridity of its protagonist, Hu Taiming. In contrast, *Teahouse* dramatizes the communal disintegration of semi-colonial China from the late Qing dynasty to the early People's Republic (1898–1949), centering on the teahouse owner Wang Lifa. 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ialogue, narrative, and literary forms of the two works to examine how identity crises and the tension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zation are manifested in colonial and semi-colonial contexts. Drawing on Frantz Fanon's colonial psychology, Homi K. Bhabha's cultural hybridity, and Benedict Anderson's imagined communities, the study elucidates how these works illuminate the universal and particular narratives of modern East Asia. Through this analysis, it aims to deepen the multilayered understanding of East Asian literature and history while reevaluating the scholarly significance of both works.

Key words : *Orphan of Asia*, *Teahouse*, identity crisis, coloniality, tradition–modernization conflict, East Asian modernity, literary form

투 고 일 : 2025. 7. 10. / 심 사 일 : 2025. 7. 15.~ 2025. 8. 15. / 게재확정일 : 2025. 8. 20.

